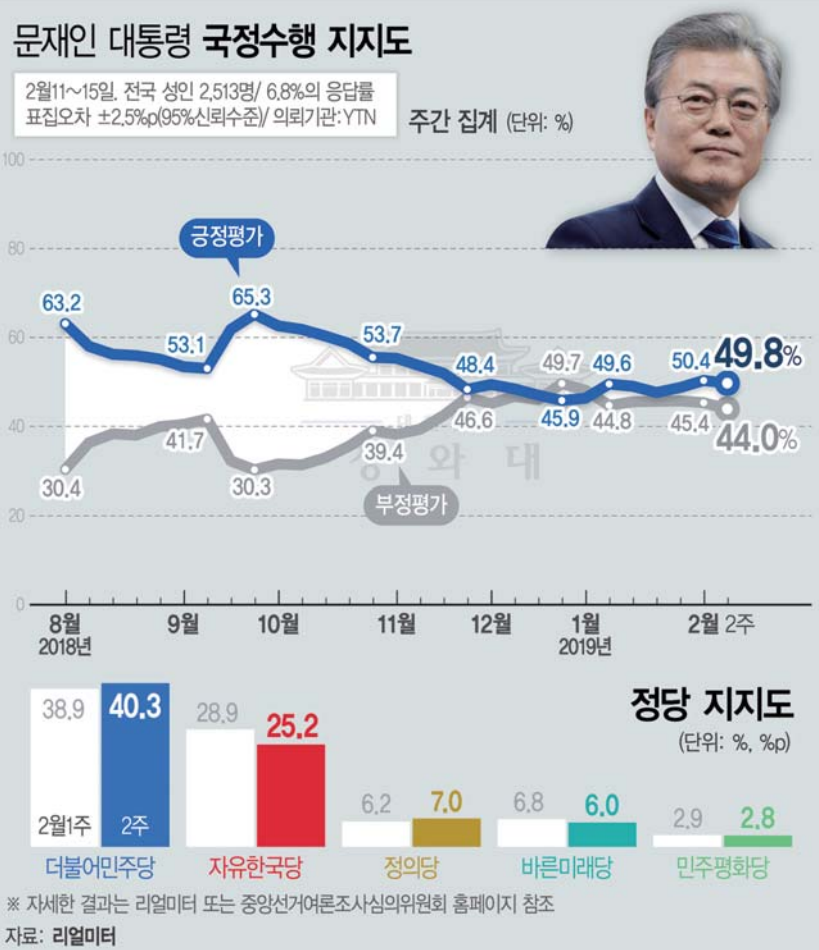


#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49.8%



11주만에 50%대를 회복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소폭 하락했다. 전주 대비 0.6%p 내린 49.8%를 보이며 50%대 부근에서 약보합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닷새간

부·울·경 4.3%p 올라...영남권 신공항 기대 반영  
호남, 20~30대 큰 폭 하락...‘5·18 망언’ 불똥 분석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4%p 내린 49.8%(매우 잘못함 27.8%, 잘못하는 편 16.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6.2%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50.4%(2월1주차 주간집계)로 11주만에 50%대를 회복했지만 일주일만에 소폭 뒷걸음질 쳤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40%대 후반에서 계속된 약보합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리얼미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지,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경제 활성화 행보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실업률 상승, 역전세난 등 고용·민생 악화 보도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불법 음란물을 막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2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고 추후 인터넷 검열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호남·서울(지역별), 20대·30대(세대별), 가정주부·학생·사무직(직업별), 보수층·진보층(이념별)에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PK)과 대구·경북(PK), 60대 이상, 자영업자 계층에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PK는 4.3%p 오른 44.5%, TK는 1.8%p 상승한 39.7%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60대 이상(7.1%p↑·40.9%)에서도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고 자영업자(1.7%p↑·46.8%) 계층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6%p↓·63%), 서울(5.3%p↓·50.5%)에서는 지지율 하락이 컸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 경우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파문 확산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대(9.6%p↓·45.8%), 30대(4.5%p↓·57.1%)의 하락도 두드러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與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 한국당 “김태우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 현안 협상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전한 공개 발언에서 “여야 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민생 법안이나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소집을 함께 하고 상임위나 법안심사를 병행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방향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윤러 “최근 한국당 3명 의원의 5·18에 대한 망언 문제는 한국당에서도 함께 해서 분명하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며 “이 문제도 같이 말하고 합의 도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1월 내내 여당이 국회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태우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등 조건에 대해 어느 것도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런 조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이 진정어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뒷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야당은 하루 속히 국회에 들어서서 모든 것을 의논해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모두 비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평화당 “5·18 망언 지만원 구속재판 필요” 탄원서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구속 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지씨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했다. 당 최고위원이자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 등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씨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발해 평화당 내에서 구성됐다.

최 의원 등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지씨의 망언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재판부에 지씨에 대한 구속재판과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위원회는 “지씨가 2013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씨가 불구속 상태임을 악용해 길거리에는 물론이고 민의

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형재 계속 중인 4건의 사건도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는데,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평화당 내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최경환 등 의원 16명, 지역위원장 40명 서명 “지만원 구속 재판과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

의 정당인 국회에서 마저 확보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라며 “지씨를 신속하게 구속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윤러 “피고인 신분임에도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며 “사법부와 재판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민주 “한국당 전대, 극우정치 치달아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이 5·18 왜곡 발언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권 반납을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논의의 찾을 수 없고 소수 극단적 지지자들을 위한 역사적 회향과 극우정치로 치달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애처롭다”고 밝혔다.

그는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당 대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윤리위 제명을 유보하고, 당 지도부도 해당 의원들 망언에 대해 유우부단한 태도를 취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공동체·미래성장·정분리법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wangsan